
		보 도 자 료		수도권매립지 종료		
		배포일자 2022년 2월 16일(수) 총 4매	 환경특별시 인천			
담당 부서	건강증진과	담당자	• 정신건강팀장 유경철 ☎440-1581 • 담당자 심연희 ☎440-1582			
사진(이미지)	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	참고자료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		
보 도 시 점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	

인천시, 노인 자살예방 위한 영상 콘텐츠 제작

- 노인 자살 예방을 위한 영상 콘텐츠, ‘생명사랑을 위한 마음에 온(on) 노년층’ -

- 노년층 교육 자료로 활용해 노인 생명존중 문화 확산 기대 -

인천광역시는 코로나19 재난 상황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노인의 자살예방을 위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고, 이해할 수 있는 ‘생명사랑을 위한 마음에 온(on) 노년층’을 제작 및 배포했다고 밝혔다.

‘생명사랑을 위한 마음에 온(on) 노년층’은 약 30분 가량의 영상으로, 드라마로 꾸며진 사례를 보며 노인의 자살위험 신호를 인지하고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인천시자살예방센터 강승걸 센터장(現 가천대 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)과 인천시 홍보대사 윤철형 배우가 대화를 나누는 형태로 구성됐다.

이 콘텐츠는 「마음에穩(온), 생명을 온(on) “생명사랑이 넘치는 건강한 인천”」이라는 시의 비전을 담은 영상으로, 마음이 힘든 시민들을 위로하고, 그들이 생명을 이어나가는 건강한 인천을 만들기 위

해 제작됐다.

윤철형 배우의 출연으로 노년층의 관심을 유도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2020년 인천시 65세 이상 노인 자살률은 인구 10만명 당 38.5명으로 전년대비 9.5명 감소하였으나, 인천시 자살사망자의 19.5%가 65세 이상 노인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.

노인 자살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노인 자살고위험군을 선제 발굴하고 조기 개입하는 것이 필수적이며, 자살위기에 처한 노인을 발견하면 누구나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익혀 생명지킴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예방교육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.

시는 ▲비대면 노인 자살예방교육 유입 활성화 ▲노인 자살예방 정보 제공 ▲노인 자살고위험군 발굴 등의 사업 추진을 위해 이 콘텐츠를 다각도로 활용해 노인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할 계획이다.

더불어 노인관련기관 등에 배포하고 교육해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하고, 노인 자살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체계를 견고히 할 방침이다.

또한 온라인에 취약한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 자살예방교육 심화자료 ‘나, 너, 우리 그리고 마음에 온(穩), 생명을 온(on)’을 제작해 군·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제공하고, 노인복지관, 주거복지센터, 경로당 등

노인 관련 기관 방문 시 교육자료로도 활용할 예정이다.

비대면 콘텐츠 ‘생명사랑을 위한 마음에 온(on) 노년층’은 (재)인천
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인천e배움캠퍼스(inccheon.hunet.co.kr)와 국가평
생학습포털 늘배움(www.lifelongedu.go.kr)에 탑재돼 시민 누구나 수
강할 수 있으며, 교육과 관련해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
터(☎032-468-9917)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.

정형섭 시 건강체육국장은 “노인이 스스로 삶을 마감하지 않도록 예
방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고 자신, 가족, 이웃 등 주위에 관심을 갖는
것이 첫걸음”이며 “생명사랑을 위한 마음에 온(on) 노년층 교육을
통해 노인 생명존중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”고 말했다.

<사진> 콘텐츠 홍보 사진

사진

콘텐츠 홍보 사진



비대면 콘텐츠 ‘생명사랑을 위한 마음에 온(on) 노년층’



나, 너, 우리 그리고 마음에 온(穩), 생명을 온(on)